

북스

Books

비너스는 언제부터 옷을 벗었을까

최근 한국에서는 20세기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1881~1973)의 작품이 전시되고 몇 작품은 경매에 부쳐져 화제를 모았다. 이제까지 미술 작품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린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1905)은 지난 2004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억416만 달러에 거래됐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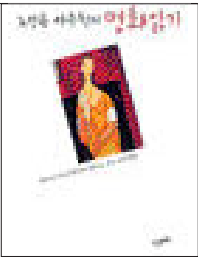
피카소가 위대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 서양미술사 500여년의 전통을 일거에 무너뜨렸다는 데 있다. 그때까지 과학과 이성의 토대 위에 서양 미술이 정취해 온 위대한 전통이 철저히 무시됐던 것. 피카소는 일찌기 서구 합리주의와 이성 중심주의, 과학에 대한 맹신 등을 폐기함으로써 제1·2차 세계대전 등으로 대표되는 서양 문명의 또 다른 야만을 내다봤다. 피카소는 화가이기 이전에 시대를 앞선 선각자였던 셈이다.

서양 미술의 고수 2명이 의기투합해 서양화의 이해를 돕는 책을 펴냈다. '노성두 이주현의 명화읽기'에는 13~20세기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명화 78점이 소개되고 있다.

노성두씨는 전문적인 지식과 유머가 넘치는 도발적인 문체로 잘 알려져 있고, 이주현씨는 흥대 미대

노성두 이주현의 명화읽기

를 나온 미술 전공 기자 출신답게 그림을 보는 뛰어난 안목과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가슴 따뜻한 글쓰기로 유명하다. 이들의 결합은 출판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다.



**13~20세기 대표작 78점
교양으로 읽는 서양회화**

책은 중세의 그늘 아래 있던 피렌체와 회화의 창시자 조토(Giotto di Bondone·1266~1337)에서 시작해 미술의 황금기인 르네상스의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미켈란젤로·라파엘로 등을 거쳐 바로크·로코코 미술, 신고전주의, 현대 미술의 마그리트(Rene Magritte·1898~1967)까지 포함하고 있다.



파블로 피카소의 1907년 작 '아비뇽의 아가씨들' 왼쪽의 안반 에이크의 1434년 작 '아르놀피니의 결혼'.



**소설가 심상대씨
산문·소설집 펴내**

심미주의자로 불리는 소설가 심상대가 산문집 '갈등하는 신(神)'과 소설집 '목호를 아는가' '명옥현'(개정판)을 한꺼번에 펴냈다.

오랜만에 펴낸 산문집 '갈등하는 신'에는 작가로 살아온 삶에 대한 단상과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등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목호를 아는가'에는 생의 근원을 찾아가는 한 사내의 이야기를 담은 표제작을 비롯, '묘사충' '병들씨의 하루' 등 9편의 소설이 실려 있으며 '명옥현'에는 1990년대 문인들의 내면 세계를 담은 표제작을 포함,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나무꾼의 뜻', 이산가족의 비애를 담은 '암흑강 풍경' 등 모두 11편의 중·단편을 담았다.



소풍 성석제 지음



'문득 손에 잡힌 사슴의 흰머리가 서늘해질 때' 먹고 싶은 생채탕, 별건 국물과 매운맛에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 왓지컬 세속의 풍경을 느끼게 해주는 '영안실의 단골손님' 육개장, 꼭 밥에 '씩씩' 비벼야 제맛이 나는 '겉절이', 기다림의 미학을 알려주는 '홍시'...

소설가 성석제가 음식에 관한 글들을 묶은 산문집 '소풍'을 출간했다. '맛'이라는 건 시기, 색깔, 연분, 기대, 냄새, 인생관 등 수많은 함수를 직감적으로 풀어낸

**추억과 인생 버무린
맛깔진 음식이야기**

결정체'라는 그의 지론답게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음식을 소재 삼은 그의 글 속에는 감칠맛 나는 음식이야기뿐 아니라 '사랑'과 '추억'과 '인생'이 녹아 있다. 책에서 몸 속에 '초강력 미각 활성물질'을 담고 있다고 고백한 소설가 성석제의 '대한민국'의 '내면 지도'를 만들었다'고 기업을 토하는 지인(知人) 등 다양한 음식을 둘러싸고 저자와 그 주변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시종일관 유쾌하고 가슴을 따뜻하게 해준다.

1부는 너비(나비)부터 목말까지 한겨 식사로 적당한 음식, 2부는 밥면과 라면같은 국수류, 3부는 홍시·식화전 등 결다리 음식, 4부는 국화차 소주 같은 마실거리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책에는 '요로졸 조로졸 허썩도'의 진리를 배운 담양의 떡갈비, 1995년 뉴욕에서 먹은 햄버거에 얽힌 일화,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라면과 자장면에 얽힌 추억,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이야기 풀이엔 감발, '원조'에 대한 불편한 심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겼다.

해학을 아는 최고의 이야기꾼이라는 명성답게 '소풍'은 읽는 재미가 그만이다. 책을 덮을 때까지 계속 웃음이 터져 나온다. 끝은 물 속으로 마지막 모습을 감추는 것의 뒷다리를 보고 '타미메이'의 'i will be back'을 떠올리는 모습에서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화가 김경호씨의 재치 넘치는 만화는 덩이다.

〈한길사·9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인오스틴의 연애론= '오만과 편견' '에마' 등 남녀의 복잡한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한 소설로 영국의 최고 문학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제인 오스틴. 작가 로렌 헨더슨은 제인오스틴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들었던 참신한 연애 지침서를 썼다. 〈예담·9천800원〉

▲여행하는 나무= 20년간 알래스카의 자연과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낸 야생사진작가 호시노 미치오가 들려주는 삶의 에세이집. 알래스카는 에스키모 말로 '위대한 땅'을 뜻한다. 작가는 그 위대한 땅의 모든 것을 글로 표현했다. 단순한 미개척지가 아닌 인간과 야생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알래스카에 대한 작가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 〈갈라파고스·1만2천원〉

▲센티멘털= 소설 '일식'으로 최연소 아쿠타가와 수상 기록을 히라노 게이치로의 단편 4편을 모은 책이다. '청수' '다세계와' '추억' '얼을 던져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절된 단어의 나열, 한 페이지를 틀로 나눠 쓰여진 문장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등 실험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일본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다. 〈문학동네·9천500원〉

▲내 잠속에 비 내리는데,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늘(전2권) = 독특한 외모,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괴짜작가로 불리는 이의수의 산문집. 지난 1985년과 1998년에 출간된 책들을 독자들의 요청에 의해 재발간한 것이다. 아무것도 없었던 문학 청년이 베스트셀러 소설가로 태어나기까지의 고난과 아픔, 열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냄·각권 9천500원〉

▲고고학자들의 카리스마를 클릭하라= 미국에서 구약학을 연구한 이요엘 교수가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추적한 '사라진 성서 속의 도시'들이 책으로 나왔다. 성서를 고고학적으로 분석해 인문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스라엘에서의 개인적인 체험이 흥미를 높인다.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수십장의 컬러사진들이 인상 깊다. 〈평안·1만5천원〉

▲버지니아 울프 단편소설 전집= 20세기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버지니아 울프의 단편 45편을 엮었다. 초기작 '필리스와 로저먼드'부터 마지막 작품인 '해수욕장'까지 그녀의 모든 단편이 연대별로 수록되어 있다. 미발표 유작 18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늘연못·1만원〉

▲우리 식물 세밀화 대도감= '우리 자연을 기록하는 일야밭'로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일'이라는 열정으로 10년이 넘도록 우리 식물 세밀화 대도감을 그려온 송 훈씨가 우리 꽃의 느낌을 살린 식물 세밀화 231점을 하나의 화집으로 묶어냈다. 식물학자, 식물사건 전문가들의 감수로 우리 식물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까지 전한다. 〈한양사·15만원〉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districts in Gwangju, including Jeonbuk, Gwangju, and Jeonnam. Each ad lists property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